

영암씨름단, '홍성설날씨름대회' 석권

장성우 백두장사·최성환 한라장사 2체급 휩쓸어

전동평 군수 "한국씨름·영암군 이름 알리도록 노력"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지난 27일까지 6일간 충남 홍성군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0 홍성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와 백두장사 2체급을 휩쓸었다.

영암군 씨름단은 2017년 창단 후 현재까지 총 21회 장사 배출과 전국체전 금메달 2개 획득으로 명문 씨름단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최된 한라장사 결정전에서는 최성환 장사가 징음시청의 정상호 선수를 3대 0으로 제압하며 설날대회에서만 4차례, 총 8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26일 백두급에서는 셋발 장성우 장사가

증평군청 김진 선수를 3대 2로 누르고 꽃가마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해 영월, 용인대회에 백두장사에 이어 천하장사까지 등극했던 장성우 장사는 이번 백두장사 등극으로 총 4회 장사 타이틀을 차지하며 백두급 신공 강자임을 다시 한번 알렸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두 선수의 장사 등극을 통해 영암군민속씨름단이 한국씨름의 주역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며 "계속해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이 한국씨름과 영암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암민속씨름단 최성환 선수가 '2020홍성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를 차지했다.



KIA, 키움과 트레이드 박준태+2억원↔장영석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가 맞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키움과 KIA는 28일 오후 장영석(30)과 박준태(29)를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키움이 장영석을 KIA에 내주고 현금 2억원과 박준태를 받아가는 트레이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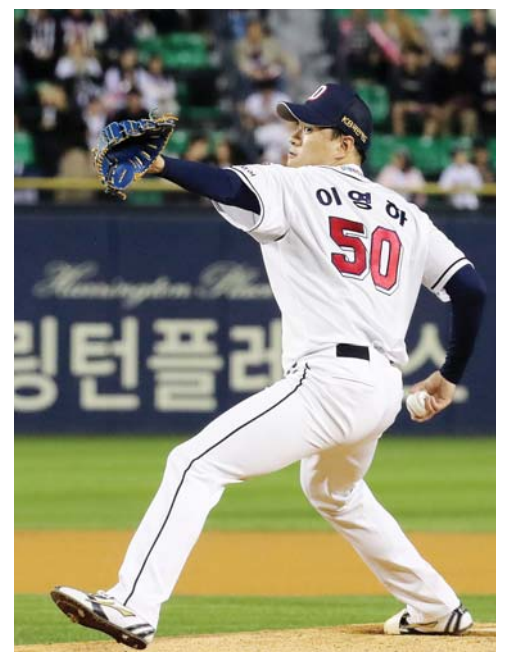
박준태는 2014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로 KIA의 지명을 받은 우투좌타 외야수다. 안정적인 수비, 강한 어깨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외야 선수층이 강화됐다"며 "외야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기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태는 31일 키움 선수들과 함께 대만 가오슝으로 1군 스프링캠프를 떠난다.

장영석은 우투우타 내야수로 2009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은 유망주 출신이다. 통산 9시즌 동안 423경기에 출전 타율 0.233 33홈런 158타점을 기록 중이다.

KIA 관계자는 "장영석은 내야수로서 활용도가 클 뿐 아니라, 중장거리형 타자로 팀 타선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하 170% 인상된

2억7000만원 계약

장원준은 6억에서 3억으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2020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5명 전원과 계약을 마쳤다고 29일 발표했다.

선발 풀타임 첫해를 보낸 이영하는 1억원에서 170%(1억7000만원) 인상된 2억7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팀 내 최고 인성물이자 인상액이다.

이영하는 지난해 29경기에 등판해 17승 4패 평균자책점 3.64를 기록했다. 한국시리즈 우승 후에는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도 참가, 2020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 획득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안방마님 박세혁은 1억원에서 132%(1억3200만원) 오른 2억9320만원에 사인했다. 10개 구단 포수 중 가장 많은 수비 이닝(10713이닝)을 소화했고, 공수에서 맹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마무리와 셋업맨을 오가며 불펜을 지킨 이형범은 데뷔 첫 역대 연봉 반열에 올라섰다. 작년 5500만원에서 158.2%(8700만원) 인상된 1억4200만원에 계약했다.

큰 폭의 삭감자들도 있다. 장원준은 6억원에서 절반이 깎인 3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최주환도 3억85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이 삭감된 2억7000만원에 사인했다.

뉴스1

8연승·첫 라운드 전승, '태풍' 우리카드의 핵심은 최소범실

최다인 대한항공과 160개 이상 차이 경기 당 평균 20.25개



이제는 다크호스를 넘어 '태풍'이 됐다. '장중의 볼'에서, 더 나아가 창단 첫 우승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

다. 남파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구단 최다인 8연승과 라운드 전승의 기록을 세우며 '만능카드'로 거듭나고 있다.

29일 현재 우리카드는 18승6패(승점 50)로 대한항공(승점 45·16승8패), 현대캐피탈(승점 42·14승9패)을 따돌리고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올 시즌 우리카드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공수 안정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범실 최소화'다.

현대 배구에서 사령탑들이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감함이 범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번 시즌 대한항공은 팀 내 최다 범실(649개, 경기당 27개)을 기록하고 있다, OK저축은행 또한 638개의 범실(경기당 26.6개)을 했다. 매 경기마다 적어도 한 세트 이상 범실로 상대에 세트를 내준 셈이다.

반면 우리카드는 과감함 속에서도 적은 범실이 눈에 띈다. 24경기를 치르는 동안 486개의 범실을 기록, 경기 당 20.25개에 그쳤다. 범실이 가장 많은 대한항공과는 163개 차이가 난다.

범실 최소화는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이 추구하는 '디테일 배구'의 핵심이다. 신 감독은 평소 연습 때에도 의미 없는

범실을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다. "연습이 곧 실전"이라는 신 감독의 지론 속에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공격적이면서도 범실을 줄여 나가는 것을 터득해 나가고 있다.

과격시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카드지만 표정은 오히려 담담하다. 지난 시즌에도 6라운드 초반 1위를 했지만 결국 3위에 그쳤던 경험이 있기에 쉽사리 들뜨지 않는다.

다만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리버맨 아가메즈(폴롬비아)에 의존했던 배구가 아닌 모든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펠리페 안톤 반데로(브라질), 나경복, 황경민 등 날개 공격수들은 세터 노재욱의 토스에 춤을 추고, 중앙에서도 경험 많은 최석기와 이수환, 하현용, 윤봉우 등이 제 몫을 해주고 있다. 국가대표에서 경험을 쌓은 리베로 이상욱까지 기량이 일취월장했다.

우리카드의 주장 윤봉우도 "모든 선수들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주다 보니 빈틈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3년 간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양강' 체제가 굳건했다면 올 시즌 태풍의 눈이 된 우리카드가 겨울 코트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교축구 최강 가린다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2월11일 광양서 킥오프

고교축구 최강을 가리는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2월 11~ 23일 전남 광양에서 펼쳐진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제22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지난해 우승팀 매탄고와 준우승, 3위 팀 등 전국 축구 명문 고등학교 26개팀이 참가해 명실공히 고교 축구 최강을 가리게 된다.

이날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진 추첨에는 국내 유명 유스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대한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가 주최하

는 이번 대회는 광양공설운동장을 비롯한 4개 경기장에서 조별 풀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전은 2월 11~ 17일 조별 풀리그로 진행되며, 16강전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리게 된다. 결승전은 2월23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조영진 시 체육과장은 "광양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광양공설운동장 등 4개 경기장에 자원봉사, 진행요원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U-23챔피언십 우승 멤버 조규성 영입

"다양한 공격 루트 창출할 수 있을 것" 기대감

전북현대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우승 멤버인 공격수 조규성(21)을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 구단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찾아 득점하는 스타일인 조규성 영입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규성은 지난해 K리그2 FC안양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젊은 공격수로 첫해부터 팀의 핵심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해 맹활약했다.

지난해 33경기에 출전해 14골 4도움을 올린 조규성은 K리그2 국내선수 득점 1위(K리그2 전체 4위)에 오를 정도로 탁월한 마무리 능력을 갖춘 지원이다.

'2019 K리그 대상'에서 베스트11 공격

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던 조규성은 김학범 감독에 합류해 참가한 2020 AFC U-23 챔피언십에서도 2골을 터뜨리는 등 차세대 대표팀 스트라이커를 향해 성장하고 있다.

조규성은 "최고의 팀 전북에 오게 돼 가슴이 벅차고 설렌다"며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 도전에 반드시 성공해서 전북 팬들에게 인정받고 팀에 필요한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